

제목: 빅토리아에서의 4주

[강엘리아]

자유전공학부 2022224377, 강원대학교

이메일: asdu1013@naver.com

2024학년도 여름학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단기해외어학연수 참가 후기

<작성방법>

1.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
2. 글씨크기, 자간, 여백 수정 금지
3. 들어가는 말: 서론작성
4. 연수대학 소개: 연수국가, 연수대학,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5. 본문: 현지생활, 수업, 현지에서의 여행, 만남, 기억에 남는 과제, 새로 얻게 된 지식이나 역량, 한국과 달라서 낯설거나 신기했던 경험, 준비과정이나 현지에서 직면했던 도전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 연수 참가 후 달라진 점, 앞으로의 계획 등
6. 맺음말: 글을 마치면서 전하는 소감, 다음 참가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 감사의 말 등
7. 분량: 5장 이상(사진 제외) / 현지 연수와 관련된 사진 3장 이상 첨부
8. 제출방법
 - 파일명은 '2024_여름_국가명_대학명_성명_소속학과'로 저장
 - 이메일 제출 ojh@kangwon.ac.kr
 - Word 파일로 제출
 - 제출기한: 2024.08.4.(일)까지

들어가는 말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영어권국가에서 한번 살아보고싶었습니다. 캐나다에도 너무 가보고싶었던 찰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어학연수 갈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자비 100% 부담이 아니라 학교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어학연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키워드: #빅토리아 #캐나다 #UVIC

연수대학 소개

학교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지원을 받고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캐나다 빅토리아에 위치한 대학교 입니다. 빅토리아는 밴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있어 캐나다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로 꼽는다고 합니다. 또 건조해서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저는 빅토리아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빅토리아 대학교로 갔습니다. 택시비는 6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밴쿠버 공항에서 내려서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로 오면 비행기 값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생활할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1인 1실이었고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또 빅토리아 대학교에 도착하면 CA 분들이 계셨습니다. CA 분들은 학교 생활이나 궁금한 점, 방과 후 활동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문 잠금장치는 열쇠입니다. 저는 열쇠 사용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기숙사에서 클래스 건물까지 걸어서 5~6분 정도 걸렸습니다.

밥은 더 코브 라는 카페테리아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원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원 카드는 연수 첫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배정은 첫날 테스트를 보고 정해집니다. 테스트는 말하기, 쓰기, 사진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는 테스트 등을 보았습니다. 말하기 테스트는 2~3명씩조를 지어서 따로따로 테스트를 봤습니다.

수업은 8시30분부터 10시20분까지 첫 수업을 하고 10시40분부터 12시30분 까지 두번째 수업을 하면 수업은 모두 끝납니다. 수업이 끝나면 담당 CA분이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지사항과 방과 후 활동들을 말 해 주십니다.

방과 후 활동은 액티비티가 많고 접시에 페인팅하기, 닌텐도 스위치하기, 보드게임하기 등 여러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빅토리아 대학교 기프트샵에는 나이키와 빅토리아 대학이 콜라보한 옷들도 있었고 컵과 텀블러 등 많은 물건들과 인형, 옷 등이 있습니다. 여기 물건들은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또 북스토어도 같이 있어 책을 살 수도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에는 짐도 있는데 헬스장과 클라이밍장 농구장 등 짐이 엄청 큼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 카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 펍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펍에는 칵테일, 맥주 등 여러가지 주류들을 팝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음식이 짜고 단편이어서 입에 맞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저는 펍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외국인 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으면 펍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펍에는 당구대와 노래방기계가 있습니다. 노래방기계는 정해진 요일 마다 신청을 받아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무비데이 라고해서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보통은 애니메이션이었고, 영어 자막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영화는 클래스 건물에서 봤으며 팝콘도 같이 줍니다. 마실 게 먹고싶으면 건물 내에 자판기가 있으니 거기서 뽑아서 먹을 수 도 있습니다. 자판기는 비싼 편이니 더 코브에서 마실 음료를 구매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캠퍼스 내를 걸어 다니면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들과 다람쥐, 너구리 등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을 만지겠다고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거나 만지면 안됩니다.

카페테리아 건물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바다가 보입니다. 근데 한국과는 다르게 파도가 거의 안치는 정도로 잔잔합니다. 바다에는 놀이터와 그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바다를 가면 별들과 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름달이 떴을 때 보러 갔었는데 정말 예뻐했습니다. 해 지는 것도 예쁘니 해지는 게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몰 시간을 잘 체크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제가 어학연수를 간 빅토리아 대학에는 한국인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일본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었지만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혼자 다니시거나 다른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만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CA 분들이나 클래스 티쳐와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CA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A 분들도 자신들에게 말을 많이 걸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도 많이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 활동을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노래 빙고, 커피 소셜 등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있으니 그런 활동들을 적극 활용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자유시간이지만 CA 분들과 시드니를 놀러 가기도 하고, 다운타운을 놀러 가기도 합니다. 같이 놀러가서 자유시간도 주어집니다. 만약 처음 가는데 혼자가기 너무 무섭다 하시면 이러한 활동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빅토리아 내에서는 버스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첫 날에 유모카드 라는 교통카드를 받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다운 타운이나 업 타운 등을 다녀 올 수 있습니다.

다운 타운에는 기프트 샵과 펍 등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또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청 건물이 이뻐서 사진찍기에도 좋습니다. 꼭 한 번 가보세요. 저녁에는 불빛도 켜져서 더욱 예쁩니다.

시청 근처에는 치맥이라는 한식당이 있습니다. 매운 게 너무 먹고 싶을 때 짬뽕을 먹으면 한국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업 타운에는 월마트가 있어 마트를 다녀와야 하면 업 타운으로 다녀 올 수 도 있습니다. 업 타운에는 월마트 말고도 신발가게와 옷가게 등 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은 학교에서 버스타고 20~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업 타운도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걸립니다.

물가는 한국보다 비싼편입니다. 물가도 비싸지만 팁까지 더해져서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음식들이 짝편입니다.

캐나다는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다운타운을 나갔을 때 대마초 냄새가 엄청 납니다. 길을 걸어다니면서 대마초를 피기도 합니다. 다운타운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흡리스들과 마약중독자들이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캐나다에는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대형건들이 많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거나 만지고 싶으면 한국에서처럼 인사를 하고 만져도 되는지 물어보고 만지는 게 매너입니다. 또 현지 사람들은 동물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티쳐가 말해 주셨습니다. 현지인하고 스몰토크를 하고 싶거나 말을 걸 고 싶을 때 반려동물로 말문을 터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마다 밴쿠버를 가는 일정이나 카약을 타는 일정, 범고래를 보는 일정 등 다양한 일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돈을 따로 내야되기 때문에 따로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밴쿠버는 빅토리아와 가깝기 때문에 꼭 같이 가지 않고 혼자라고 꼭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시애틀도 멀지 않아서 주말에 시애틀을 다녀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캐나다까지 갔으니 기숙사에만 있지 않고 여러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빅토리아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토론토에 있는 큰 나이아가라 폭포와 다르게 조그만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녀와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던 기숙사는 카페테리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 2층에 세탁실과 같이 친구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과 책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음식을 먹어도 되고 대화를 나누어도 됩니다. 그리고 CA분들도 거기에 있으니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려면 세탁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세탁카드 발급 비용만 10달러였습니다. 또 세탁 세제와 섬유유연제는 따로 구매해야 됩니다. 세탁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기숙사 방은 당연하겠지만 신발을 벗지않고 생활합니다. 만약 벗고 생활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들은 청소를 하고 신발벗고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슬리퍼를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실을 다녀올 때나 샤워실을 다녀올 때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방에 환풍구 처럼보이는 네모난 구멍은 에어컨입니다.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따로 에어컨이 없습니다. 또 베개와 이불들은 기숙사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정해진 요일마다 베개커버와 이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 내에는 옷장이 있고 서랍도 있습니다. 옷장 문을 열면 문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울 말고는 거울이 없으니 탁상 거울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옷장은 있지만 옷걸이가 없습니다. 저는 옷걸이를 챙겨가지 않아 너무 불편했습니다. 챙겨갈 수 있으면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책상에는 조그만한 스탠드 램프가 있습니다. 또 블라인드를 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이 잘 되지않습니다.

방 내에 있는 가구들은 단출합니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등 있어야 할 것들이 최소한 있습니다. 공용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을 사용할 때에는 무조건 샤워커튼을 치고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건식 이어서 물이 새어나가면 안됩니다. 제가 샤워장을 쓰려고 문을 열었을 때 샤워커튼을 제대로 치지않아 물이 흥건하게 바닥을 적셔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할때 그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세면대와 변기가 있습니다. 세면대는 사용하고 물이 흥건하면 비치되어 있는 휴지로 뒤처리 까지 하고 나가는게 좋습니다. 뒤처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불편했습니다.

맺음말

제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갈 수있게 지원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들이 있을 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신 국제화 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어학연수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다음참가자들을 위한 조그만한 팁을 적겠습니다.

1. 한국에서 빅토리아공항로 바로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경유를 해야하는데 비행기를 타지않고 페리를 타고가면 비행기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기숙사 내에서 음식을 해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시켜먹거나 컵라면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3. 유모카드 (버스카드)는 빅토리아 내에서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쓰시면 버스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4. 원 카드로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잘 분배해서 넉넉히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5. 기숙사에 옷걸이가 없으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6. 기숙사 내에 헤어드라이기가 없습니다. 저는 따로 구매해서 썼습니다.
7. 세탁카드는 환불되지않습니다. 무조건 카드로만 세탁이 가능합니다. 현금사용불가
8. 세탁카드 충전할 때에는 현금, 카드 둘 다 가능합니다.
9. 학교 내 펌은 밤 10시까지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늦게 까지도 합니다.
- 10.빅토리아에서 여름은 9시가 넘어야지 일몰이 됩니다. 밤8시가 되어도 밝은 밝습니다.
- 11.돼지코를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 변압기능이 없어서 잘 보고 변압기능이 있는 것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12. 캠퍼스 내 체육관은 원카드만 있으면 무료입니다. 하지만 클라이밍장에서 신발 등을

빌릴때는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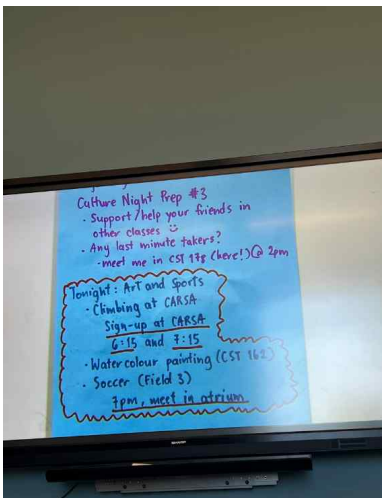
13. 저희는 다같이 비행기타고 가고 오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이 가능합니다.
14. 카페테리아에 스시나 캘리포니아 롤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릴도 있어서 햄버거나 어니언링, 프렌치 프라이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15. 빅토리아 대학교 기념품점은 가격대가 좀 있는편 입니다.
16. 주말에 돈을 내고 하는 활동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17. 기숙사 내에 물티슈와 티슈가 없으니 따로 사가야합니다.
18. 빅토리아에서 은근 여행할 곳이 많으니 잘 찾아보고 여행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 학교 내 펍에서 여권검사를 할 때 원카드를 같이 들고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증명해야하는 ID가 2개여야합니다.
20. 카드는 비자, 마스터 등 카드사가 다른거 2개 정도 준비하기. 또 카드 결제를 할때 정보를 빼갈 수 있으니 여행용 카드를 챙겨가기.
21. 수건 꼭 챙기기. 기숙사에 수건이 없습니다. 꼭 챙겨오세요
22. 캠퍼스 내에 시큐리티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물건을 분실했으면 시큐리티한테 문의할 수 있습니다.
23. 학교 내에서 흡연구역을 제외하고는 금연입니다.
24. 프로그램이 끝나고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꼭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5. 사슴들이 캠퍼스 내에 돌아 다닙니다. 만지거나 먹이를 줘서는 안됩니다.
26. 여름에 해가 늦게 진다고해도 밤은 밤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27. 만약 여자라면 여성용품은 한국에서 챙겨가는것이 좋습니다. 여성용품 질이 좋지 않습니다.
28.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할텐데 꼭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9. 수업을 할때에 테스트를 자주 봅니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30.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때 학교 인스타그램에 디엠을 보내면 됩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첫날 알려줄 겁니다.
31. 캐나다 음식이 먹고싶으면 푸틴을 먹으면 됩니다. 치킨 옆에 있는게 푸틴입니다.
32. 한식을 먹고싶으면 치맥 이라는 한식당을 추천드립니다.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 학교 근처에 있는 바다입니다.



담당 CA분이 이렇게 방과 후 활동을 알려주십니다.



캠퍼스 내에 사슴이 돌아 다닙니다.



방과후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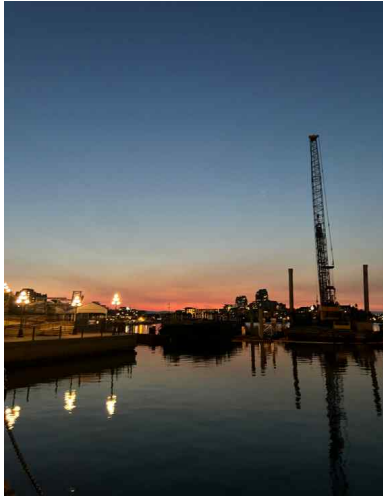
카페테리아에서 먹은 어니언링과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케찹과 머스타스 소스 등 각종소스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청 입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학교 도서관입니다.

